

| | | | | |
|-------|------------------------|-------|------------------------|--------------------|
| 보도 일시 | 2022. 11. 19.(토) 14:00 | 배포 일시 | 2022. 11. 18.(금) 15:00 | |
| 담당 부서 |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 책임자 | 과장 | 이동석 (02-2110-1450) |
| | | 담당자 | 사무관 | 윤영란 (02-2110-1451) |

2022 한일 미디어·정보리터러시 포럼 열려

- 한일 양국 '디지털 시민을 위한 미디어교육 필요' 한 목소리 -

한일 양국의 방송통신 기관과 전문가들이 만나 미디어 교육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1월 19일 일본 호세이대학이 주최하고 총무성과 토다시 교육위원회 등이 함께하는 「2022 한일 미디어·정보리터러시 포럼」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2020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주관 「글로벌 미디어·정보리터러시」 대표회의가 열렸을 당시, 한일 양국이 미디어 교육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포럼은 서울여대 안정임 교수 등의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현황과 미래 과제’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이후 양국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주요내용과 과제 등이 발표되었으며, 일본 호세이대 사카모토 준 교수의 사회로 한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개최되었다.

이날 방통위는 “일과 삶 전반이 디지털미디어로 매개되는 현시대에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디지털 소통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등을 활용, 국민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에서는 “허위정보의 유포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며 “정보통신기술(ICT)의 적절한 활용과 이해, 책임 등을 담은 ‘디지털 시민성’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의 디지털 소통 역량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날로 커져 가는 가운데 양국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가 깊다” 며, “이번 포럼으로 미디어 교육이 국민께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 지원이라는 거시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고 말했다.

붙임 : 포럼 포스터 1부. 끝

2022 한일 미디어정보리터러시 포럼

온라인 진행

참가신청 >>>



한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

2022.11.19 토 14:00~16:45

| | | |
|-------------|------|--|
| 14:00~14:10 | 개회사 | 야마와키 타케시 (일본 스마트뉴스미디어연구소 소장) |
| 14:10~14:30 | 기조발제 |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현황과 미래과제 안정임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김슬기 (시청자미디어재단 정책연구팀장) |
| 14:30~15:00 | 세션1 | 총무성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 현황과 과제 타나베 미즈오 (총무성 정보유통진흥과장) 토다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 현황과 과제 토가사키 츠토무 (토다시 교육위원회의 교육장) |
| 15:00~15:30 | 세션2 | 전 국민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주요 내용과 지향점 윤영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미디어정책과 사무관)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현황과 과제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15:30~15:40 | 휴식 | |
| 15:40~16:40 | 종합토론 | 인사 사카모토 준 (오세이대 교수) 코디네이터 후루타 다이스케 (미디어클럽 저널리스트) 이마도 타마미 (dot리현 디지털시티즌십 교사) 토론 박유신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 회장) 성경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장) 요코타 히로카즈 (토다시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실장) |
| 16:40 | 폐회사 |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 한국어와 일본어 자막과 통역이 제공됩니다. 문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정책연구팀 (02-6900-8307)

주최



공동주관

